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뜻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탈출기 24,3-8

화답송



(후렴) 구원의 잔 받들 - 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 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히브리 9,11-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음 | 마르코 14,12-16.22-26

성가 | 입당성가 [169] 예물준비 [217]

영성체 [170] 파견성가 [200]

미사봉헌

연미사	봉헌
임순남 엘리사벳	김미혜 이렌나
정정옥 스테파노	정유나 실비아 가족
유혁일 헨리	가족
이병하 요한	이영주비오 황지윤아네스
이정진 안토니오	가족

생미사	봉헌
한동훈 생신축하	이영애 레지나
김소민 크리스티나 영육건강	강진영 릴리안
이경아 로사	김유화 데레사
박도미니카 가족	안선정 마리안나
김정우 시몬 빠른치유	김금숙 루시아
강순기 이레네 빠른치유	제의실
강순기 이레네 빠른치유	이경자 율리안나
박옥선 로사, 강순기 이레네	연령희
이루리 모니카, 박창현 영육건강	이경자 율리안나
김현용 니콜라오	박신희 리나
성소후원회 회원들의 영육건강	성소후원회
김가롤로 신부, 김효주 수녀	성소후원회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6월 2일	백승민	강호영	김승연	김승연	김종선	김실비아 한데레사
6월 9일	정유진	송명근	김미혜	김미혜	유정옥	양글라라 이우스티나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83,596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바자회 경품 수령안내

*6/23일(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No.	name
11573	Cheolsoon Jang
10799	이중훈 바오로

▶미국본당 요청사항

맨하탄 프란치스코 아랫성당에는 성체 현시 중이며, 기도하
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한인 미사시간(09:15) 전, 후
로 아랫 성당 안이나 밖에서(고해소 주변) 잡담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8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6,17
일시: 7/17(토) 9am~ 7pm. 장소: 버겐 아카데미 오디토리움
초대강사: Fr.김재덕 베드로, Fr.정대영 모세
신청: \$40(점심포함) 이미숙안나 성령기도회장 917-579-5072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
실 피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제 41차 미동북부 지구 올드레야 대회

일시 : 7/4(목) 메이플우드 성당
일반 교우분들의 참가 환영합니다.

▶2024 청년성서모임 여름학기 그룹원 모집

교우분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받은청년
모집과정: 창세기,탈출기,마르코, 요한
신청마감: 7/7(일) 첫모임: 7/14(일) 12pm(참석필수)
참석장소: 다미안홀. 대표봉사자: 배수아 212-810-9128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부속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얼씨구나,
휴가로구나 ~ 😊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플로라 (FLORA YANG)
무역 수입 IMPORT & 수출 EXPORT
657-337-5130
marketing@czlusa.com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더큰집

TEL. 212-564-8238

WONJO New Wonjo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광고주를 찾습니다.

유언 받들기



최후의 만찬 [후안 후아네스, 최후의 만찬, 1560년경, 목판에 유채, 116x191cm, 프라도 미술관, 마드리드, 스페인]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Mk 16장 15절

옛날에 청개구리가 있었다. 말 그대로 청개구리다. 엄마가 산으로 가라고 말하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고 말하면 산으로 가고, 하여튼 누가 무엇인가를 시키면 꼭 심술을 부려 반대로 행하는 개구리다. 이 말썽쟁이 개구리의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 개구리를 불러 놓고 이렇게 말한다. “얘야.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이 에미가 죽거들랑 내 주검을 냇가에 묻어다오.” 아마 이 엄마 개구리는 아들이 워낙 반대로만 하는 아이라 그렇게 유언해야만 자신을 산에다 묻어 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그런데 웬일인가? 평소 그렇게도 거꾸로 말을 듣던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엄마의 말대로 주검을 시냇가에 묻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비가 오는 날이면 냇가로 뛰어와 무덤이 물살에 쓸려 내려갈까 걱정되어 “개골, 개골....”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것이다.

세기의 미인인 오드리 헵번은 인생의 마지막을 기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녀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로마의 휴일」이나 「티파니에서 아침을」등으로 스크린을 장악하였던 젊은 시절이 아니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걸치고 그 황량한 대지를 오가며 어린아이를 껴안고 어쩔 줄 몰라하는 쭈글쭈글한 할머니 모습일 때였다. 이 헵번이 죽어가는 순간에 많은 동료 배우들과 친지들을 모이게 한 후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두 눈으로는 좋은 것을 보며 두 손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 중 로저 무어 부부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들도 오드리 헵번처럼 세계의 기아들을 돕는 데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개구리도 로저 무어 부부도 유언을 실행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인 것 같다. 마지막 말씀, 유언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이다